Reference Record · Non−Executable

AI 시대 판단 프레임 아카이브

부제: 사고 층위·판단·책임의 구조적 정의

기록자 2026년 2월 3일 노태윤

Interpretive Framework
Reference Record Only
No Algorithmic Disclosure

0. 기록 선언 (Record Declaration)
0.1 이 문서를 남기는 이유
본 문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의사결정과 선택의 과정이 자동화되는 반면,
판단이 이루어진 위치와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고 구조적 기준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결과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판단인지, 계산인지, 또는 단순한 추천인지는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판단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남긴 기록이다.

0.2 기록의 목적과 성격

본 문서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설명하거나 구현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이 기록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사고가 작동하는 층위(Level)를 정의하고
* 판단(Judgment)이 성립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을 명시하며
* 판단과 책임이 연결되는 위치를 고정하는 것
따라서 본 문서는 해결책이나 실행 지침이 아닌,
사고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한 참조 기록(Reference Record)이다.

0.3 실행·구현을 다루지 않는다는 명시

본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 알고리즘 또는 산식

*가중치, 임계값, 점수 계산 방식
* UI, UX, 인터페이스 흐름
* 시스템 실행 로직 또는 운영 규칙
* 데이터 구조 및 로그 설계
이 문서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개념 정의와 구조적 기준의 수준에 한정되며,
재현 가능한 구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0.4 참조 기록(Reference Record) 선언

본 문서는
AI 시대의 판단과 책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고 구조적 기준을 최초로 정리·고정한 참조 기록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본 기록은
* 실행 문서가 아니며
* 기술 명세서가 아니고
* 정책 제안서도 아니다.
이 문서는
이후 이루어질 연구, 구현, 제도, 기술적 시도가
어떤 사고 구조를 전제로 출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존재한다.

기록 선언 고정 문장

이 문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기록한다.

2. 핵심 전제
사고는 높이를 가진다
2.1 사고는 양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사고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고는 **어디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지식을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현상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보고,
어떤 사람은 판단과 책임의 문제로 이동한다.
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가 위치한 층위의 차이다.
따라서 본 기록은
사고를 축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위치와 높이의 문제로 정의한다.

2.2 지식의 양 ≠ 사고의 위치

지식의 양은
사고의 재료를 풍부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사고의 위치를 자동으로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 책임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는 학습의 부족이 아니라,
사고가 특정 층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기록은 다음을 전제로 한다.
지식의 축적은
사고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고의 위치는 별도의 인식 능력을 요구한다.

2.3 한 분야 전문성과 층위 인식의 차이

한 분야의 전문성은
해당 영역의 정보와 해석 능력을 고도화한다.
그러나 전문성 자체가
사고의 층위를 자동으로 확장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는 종종

자신의 전문 영역 내부에서는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 설명이

* 구조적 판단인지
* 경험적 해석인지
* 관성적 의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층위 인식의 문제다.
본 기록은
전문성을 부정하지 않으나,
전문성과 사고 층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2.4 메타인지의 역할

메타인지는
사고의 내용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고가 작동 중인 위치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즉, 메타인지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나는 지금 정보를 말하고 있는가
* 해석을 하고 있는가
*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가
*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사고는 지속되더라도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된다.
본 기록은 이러한 상태를
'층위 페이드' 또는 '메타인지 페이드'로 정의하며,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본다.

2.5 핵심 전제 요약

본 기록은 다음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 사고는 축적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 지식의 양과 사고의 층위는 동일하지 않다
* 전문성과 층위 인식은 별개의 능력이다

메타인지는 사고의 **위치를 유지하는 장치**다
이 전제 위에서만
판단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성립할 수 있다.

3. 개념 정의 (Concept Definitions)

본 장은 본 기록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을
일관된 의미로 고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각 용어는 설명이 아니라 **정의(definition)**로 다루어진다.

3.1 층위 (Level)

층위(Level)란
사고가 작동하는 **위치이자 높이**를 의미한다.
층위는
지식의 양, 정보 처리 속도, 전문성의 깊이와 동일하지 않으며,
사고가 **어떤 기준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좌표다.
동일한 정보라도
어떤 층위에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본 기록에서 층위는
사고의 성숙도나 우열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사고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구조적 개념이다.

3.2 사고 층위 구조

(Information / Interpretation / Structure / Judgment / Responsibility)
사고 과정은 다음의 다섯 층위로 구조화된다.

정보 (Information)
관측된 사실, 데이터, 사건, 수치
→ “무엇이 발생했는가”

해석 (Interpretation)
정보에 의미나 맥락을 부여하는 행위
→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구조 (Structure)
반복 조건, 관계, 인과,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
→ “왜 반복되는가”

판단 (Judgment)
구조를 바탕으로 선택·보류·거부를 결정하는 단계
→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책임 (Responsibility)
판단의 결과가 귀속되는 단계
→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하는가”

상위 층위는 하위 층위를 포함하지만,
하위 층위는 상위 층위를 대체할 수 없다.

3.3 층위 이동 (Level Shift)

층위 이동(Level Shift)이란
사고의 초점을 한 층위에서 다른 층위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나열하던 사고가 구조를 묻는 순간,
또는 구조 설명에서 판단과 책임의 문제로 이동하는 순간은
층위 이동에 해당한다.
층위 이동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으며,
인식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4 층위 페이드 (Level Fade)

층위 페이드(Level Fade)란
자신이 사고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고가 위치한 층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해석을 구조로 착각하거나

의견을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판단을 책임으로 간주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층위 페이드는 사고의 부재가 아니라,
사고 위치 인식의 상실이다.

3.5 메타인지 페이드 (Metacognitive Fade)

메타인지 페이드란
사고는 지속되지만,
사고의 기준과 주도권이
외부 요소(도구, 권위, 인공지능 등)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개인은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수행하지 않는다.
본 기록은
메타인지 페이드를
AI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 붕괴의 전조 상태로 간주한다.

3.6 판단 (Judgment)

판단(Judgment)이란
정보나 해석의 산출이 아니라,
선택과 그 결과의 귀속을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조 인식을 거칠 것
* 선택·보류·거부 중 하나를 포함할 것
* 결과가 특정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은
판단이 아니라 **자동화된 처리**로 분류된다.

3.7 보류 (Hold)

보류(Hold)란
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일시 정지하는 판단의 한 형식이다.
보류는
불완전한 정보, 불확실한 구조,

또는 과도한 위험이 존재할 때
판단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선택이다.
본 기록에서 보류는
미결 상태가 아니라
판단의 일부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다.

개념 정의 장 요약

층위는 사고의 **위치**다
판단은 선택과 책임을 포함한다
보류는 판단의 실패가 아니다
층위 인식이 무너지면 사고는 자동화된다

4. 사고 층위 구조 다이어그램
(Text-based Structural Map)

본 장은 사고 층위를 시각적 장식이 아닌
구조적 관계로 명확히 고정하기 위해 텍스트 기반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다.

4.1 사고 층위 수직 구조

사고는 다음과 같은 수직 구조를 가진다.
[책임 (Responsibility)]
↑
[판단 (Judgment)]
↑
[구조 (Structure)]
↑
[해석 (Interpretation)]
↑
[정보 (Information)]

이 구조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사고의 **대체 가능성은 감소**하고,

책임의 밀도는 증가한다.

4.2 각 층위의 기능적 역할

정보
관측·기록·전달의 대상
자동화 및 대량 처리 가능

해석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
관점과 편향이 개입되는 지점

구조
반복 조건, 관계, 인과를 식별하는 단계
설명의 핵심이 형성되는 층위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선택·보류·거부를 수행하는 단계
자동화가 제한되는 지점

책임
판단의 결과가 귀속되는 단계
인간 고유의 영역

4.3 상위·하위 층위의 관계

상위 층위는 하위 층위를 **포함**하지만,
하위 층위는 상위 층위를 **대체할 수 없다**.
즉,
* 정보는 해석의 재료가 될 수 있으나
해석 자체가 판단이 될 수는 없다.

* 구조는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나
구조 설명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기능적 포함 관계**로 정의된다.

4.4 층위 혼동의 대표적 오류

층위 인식이 무너질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 해석을 구조로 오인하는 경우
* 의견을 판단으로 착각하는 경우
* 판단을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는
사고의 실패가 아니라
사고 위치 인식의 실패, 즉 층위 페이드의 결과다.

4.5 설명 가능성 검증 원칙

본 기록은 다음 원칙을 채택한다.
상위 층위의 사고는
반드시 하위 층위의 언어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즉,

* 판단을 주장한다면
그 판단은 구조로 설명 가능해야 하며,

* 구조를 설명한다면
그 구조는 정보로 환원 가능해야 한다.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고는
실제로 상위 층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상위 층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간주한다.

4.6 본 다이어그램의 목적

이 다이어그램은
사고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지도다.

본 기록에서 사고 층위 구조는
판단과 책임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요약 문장 (고정)

사고는 흐름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며,
판단은 그 구조의 특정 위치에서만 성립한다.

5. 판단 프레임 (Judgment Framework)

본 장은
본 기록에서 사용하는 판단의 기준을
규범이나 윤리가 아닌 **구조적 프레임**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5.1 구조 통과 원칙

판단은
정보나 해석의 산출이 아니라,
구조를 통과한 선택으로 정의된다.
구조를 통과하지 않은 선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순간적 반응
* 경험적 의견
* 권위나 도구의 결과 수용

이러한 선택은
판단이 아니라 **처리 또는 반응**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본 프레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구조 인식을 거치지 않은 선택은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2 보류의 정당성

판단은
항상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조가 불완전하거나,
결과의 위험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보류는 가장 정합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
본 프레임에서 보류는
* 실패
* 회피
* 미결
이 아니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판단의 형식으로 정의된다.

5.3 자동화와 판단의 구분

자동화는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판단은
구조를 인식한 후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포함하는 행위다.
자동화에는 책임이 귀속되지 않으며,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따라서 본 프레임은 다음을 구분한다.
* 책임 귀속 없는 선택 → 자동화
* 책임 귀속 가능한 선택 → 판단
이 구분은
AI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된다.

5.4 판단의 층위 명시 원칙

모든 판단은
어느 사고 층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판단이
정보, 해석, 구조, 판단, 책임 중
어느 층위에 기반했는지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판단은 검증될 수 없다.
본 프레임은 다음 질문을 요구한다.
이 선택은
어느 층위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선택은
판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5 설명 불가능한 판단의 무효성

판단은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판단은 반드시
하위 층위의 언어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 판단은 구조로 설명 가능해야 하고,
* 구조는 정보로 환원 가능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단은
결과가 우연히 적합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무효로 간주한다.
이는 판단의 정확성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판단의 **정합성과 책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판단 프레임 요약

본 기록의 판단 프레임은 다음 원칙에 기반한다.

* 구조 없는 선택은 판단이 아니다
* 보류는 정당한 판단이다
* 자동화와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
* 판단은 층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 설명할 수 없는 판단은 무효다

고정 문장

판단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선택·책임이 연결되는 위치에서 성립한다.

6. 판단 헌법 10조

AI 시대 판단의 최소 규범

본 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판단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규범**을 명시한다.
이는 윤리 강령이나 권고가 아니라,
판단을 판단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기준 선언이다.

제1조 (판단의 정의)

판단이란
정보의 처리나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선택과 그 결과의 귀속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판단 주체)

판단의 최종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제3조 (층위 명시)

모든 판단은
정보, 해석, 구조, 판단, 책임 중
어느 사고 층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 (구조 통과 원칙)

구조 인식을 거치지 않은 선택은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 (보류의 정당성)

보류는 판단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판단의 형식이다.

제6조 (책임 원칙)

판단의 결과는
반드시 특정 주체에게 귀속 가능해야 하며,
귀속이 불가능한 선택은 판단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7조 (설명 가능성)

모든 판단은
하위 층위의 언어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설명할 수 없는 판단은 무효다.

제8조 (자동화 제한)

책임 귀속이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자동화된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AI의 역할 한계)

인공지능은
정보 분석, 구조 가시화, 대안 제시에 한해 사용되며,
최종 선택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10조 (인간의 위치 선언)

인간은 지능의 경쟁자가 아니라,
판단과 책임의 기준점으로 존재한다.

헌법 요약 문장 (고정)

인공지능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나,
판단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본 장의 위치

본 헌법은
앞서 정의된 사고 층위 구조와 판단 프레임을
규범의 형태로 고정한 최소 선언이며,
이후 기술·제도·시스템 설계의 출발 기준으로 기능한다.

7. 인간과 AI의 역할 경계

본 장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을 능력의 우열이 아니라
판단과 책임의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윤리적 주장이나 기술 낙관·비관이 아니라,
사고 구조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계선을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7.1 AI가 수행 가능한 영역

인공지능은 다음 영역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정보 처리

데이터 수집, 정제, 분류, 요약, 검색

해석 보조
패턴 인식, 상관관계 탐색, 통계적 경향 제시

구조 가시화
반복 조건, 인과 관계, 시나리오 분기 제시

대안 제시
가능한 선택지의 나열 및 비교

이 영역들의 공통점은
결과가 생성되더라도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의 출력은
결정의 재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판단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7.2 AI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

인공지능은 다음 영역을 수행할 수 없다.

판단 수행
선택·보류·거부 중 하나를
책임을 전제로 확정하는 행위

책임 수반 결정
결과에 대한 귀속을 감당하는 주체로서의 선택

판단 정당화
왜 그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책임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위

이러한 영역은
계산 능력이나 학습량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주체의 부재로 인해 구조적으로 수행 불가능하다.

7.3 판단과 책임의 귀속선

판단과 자동화의 경계는
정확도나 성능이 아니라
책임이 귀속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본 기록은 다음 선을 귀속선으로 정의한다.

[AI 영역]
정보 · 해석 · 구조 가시화

판단 · 책임
[인간 영역]

이 귀속선을 넘어서는 순간,
자동화는 판단으로 오인되며
책임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은
이 귀속선을 기준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7.4 경계 설정의 목적

본 기록이 인간과 AI의 경계를 설정하는 목적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판단의 위치를 명확히 할 것
* 책임의 공백을 방지할 것
* 자동화가 판단을 대체하는 착시를 차단할 것
이 경계가 명확할수록,
인공지능은 도구로서 더욱 강력해지며,
인간은 판단의 주체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요약 문장 (고정)

인공지능은 사고를 확장하지만,
판단과 책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8. 본 프레임의 의미

왜 이 기록이 필요한가

8.1 왜 이 기록이 필요한가

인공지능 기술은
사고를 대체하기보다 **사고의 외형을 바꾸고 있다.**
추천, 예측, 자동화는 늘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판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흐려졌다.**
결과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 계산의 산물인지
* 구조 인식의 결과인지
* 책임을 전제로 한 판단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본 기록은 이 공백을
도덕이나 윤리의 언어가 아니라,
사고 구조의 언어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8.2 기존 AI 담론과의 차이

기존 AI 담론은 주로 다음 질문에 집중해 왔다.
* 성능은 얼마나 정확한가
* 오류율은 얼마나 낮은가
* 인간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담론의 공통 전제는
결과 중심이다.
그러나 본 프레임은
다음 질문으로 출발한다.

* 이 선택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 판단은 존재하는가
* 책임은 연결되어 있는가

즉, 본 기록은
AI를 평가하는 기준을
성능이나 효율이 아니라
판단의 위치로 전환한다.

8.3 "정확도"가 아닌 "판단 위치" 기준

정확도는
결과의 적합성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판단이었는지 여부는 설명하지 못한다**.
우연히 맞은 결과와
구조를 거쳐 책임을 감수한 선택은
정확도 수치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본 프레임은 다음을 분리한다.

* 결과가 맞았는가 → 정확도
* 판단이 성립했는가 → 층위와 귀속

이 기준 전환은
AI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된다.

8.4 구조를 남긴다는 것의 의미

구조를 남긴다는 것은
해답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 어떤 질문이 가능했는지
* 어떤 이동이 허용되었는지
* 어디에서 판단이 멈춰야 했는지를 **기록하는 일**이다.

구조는
사람이 바뀌어도 유지되고,
기술이 바뀌어도 참조된다.
본 기록은

특정 구현이나 시대적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판단의 좌표계를 남긴다.

8.5 본 프레임의 위치

이 프레임은
윤리 선언도, 기술 설명도 아니다.
이는
* 사고가 어디서 판단으로 전환되는지를 묻는 기준이며
* 자동화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고정하는 기록이다.

이 기준이 명확할수록,
기술은 도구로 남고
인간은 판단의 주체로 남는다.

요약 문장 (고정)

이 기록은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판단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구조다.

9. 범위와 한계 선언 (Scope & Limits)

본 장은
본 기록이 다루는 범위와 다루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오독·확장·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9.1 본 문서가 다루지 않는 것

본 기록은
사고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한 **개념적·구조적 정의**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알고리즘
계산 절차, 처리 단계, 자동화 방식

산식
점수화 방법, 가중치, 임계값, 수치 모델

UI / UX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흐름, 입력·출력 구조

실행 로직
시스템 제어 방식, 조건 분기, 자동 실행 규칙

이러한 요소는
본 프레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 중 일부**에 불과하며,
본 기록의 보호 또는 주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9.2 정책·기술·사업과의 거리

본 문서는
정책 제안서, 기술 명세서, 사업 계획서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법·행정·규제 체계에 대한 제안
* 특정 기술 스택 또는 구현 방식
* 산업별 적용 전략
* 수익 모델 또는 사업 구조
본 기록은
이러한 영역의 **출발 기준**으로 참조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실행을 지시하거나 방향을 규정하지 않는다.

9.3 범위 설정의 이유

본 기록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이유는
책임 회피나 모호성 확보가 아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판단 프레임을 **시대와 기술 변화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 구현 방식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 구조와 실행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이 분리는
사고 구조를 보호하면서도
기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9.4 본 문서의 위치 재확인

본 문서는
해답을 제공하는 문서가 아니라,
해답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고정하는 기록이다.
본 기록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남기는 데 있다.

요약 문장 (고정)

이 기록은
실행을 설계하지 않고,
판단의 구조만을 고정한다.

10. 공개·비공개 원칙 요약

본 장은
본 기록에 포함된 내용 중
공개 가능한 영역과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본 기록이 **재현 가능한 문서가 아님을 명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0.1 공개 가능한 영역 (Public Disclosure)

본 기록에서 공개되는 영역은
개념·구조·기준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은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 사고 층위(Level) 개념 및 정의
* 사고 층위 구조(정보-해석-구조-판단-책임)
* 층위 이동 및 층위 페이드 개념
* 메타인지 페이드 정의
* 판단 프레임의 구조적 원칙
* 판단 헌법 10조
* 인간과 AI의 역할 경계
* 판단 위치를 기준으로 한 신뢰 개념

이 공개는
사상의 공유나 담론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의 원점을 고정하기 위한 기록 행위다.

10.2 비공개 영역 (Non-Disclosure)

다음 영역은
본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알고리즘 설계
* 산식, 가중치, 임계값
* 점수 계산 방식
* UI / UX 흐름 및 강제 장치
* 시스템 실행 로직
* 데이터 구조, 로그 형식, 추적 방식
* 특정 기술 스택 또는 구현 수단

이 영역들은
본 기록에서 정의된 구조를 **실행하는 수단**에 해당하며,
개념 기록과 분리되어 보호된다.

10.3 재현 불가 조건 명시

본 기록은
재현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문서다.
이를 위해 본 기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 실행 가능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 수치·조건·분기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 구현 순서나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 시스템 작동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기록만으로는
동일한 시스템, 서비스, 알고리즘을
재현·구현·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문서는
Reference Record Only로서 기능하며,
실행 또는 구현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요약 문장 (고정)

이 기록은
기준을 공개하고,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다.

11. 상태 선언 (Status Note)

본 장은
본 기록 문서의 성격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태를 선언한다.

11.1 Interpretive Framework

본 문서는
사고와 판단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Interpretive Framework)이다.
이는 경험적 검증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며,
판단이 성립하는 구조와 위치를
개념적·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기록이다.
본 기록의 효력은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사고가 전개되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Reference Record Only

본 문서는
실행 지침이나 운영 매뉴얼이 아닌,
참조 기록(Reference Record)으로서만 사용된다.
이 기록은
이후 이루어질 연구, 기술, 제도, 시스템 설계가
어떤 사고 구조를 전제로 출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11.3 Non-Executable

본 문서는
실행 가능한 문서가 아니다.

* 실행 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 구현 순서를 제시하지 않고
* 시스템 작동을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기록은
그 자체로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않으며,
실행 또는 구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11.4 No Algorithmic Disclosure

본 문서는
어떠한 알고리즘도 공개하지 않는다.

* 계산 방식
* 산식
* 가중치
* 임계값
* 자동화 조건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본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본 문서에 포함된 개념과 구조는
재현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최종 상태 선언 문장 (고정)

본 문서는
해석적 프레임이자 참조 기록으로서 존재하며,
실행 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문서 종료 문장

이 기록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판단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남긴다.

12. 맺음말

기록으로서의 의미

12.1 기록으로서의 의미

본 문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발전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판단이 성립하는 기준을 남기는 것에 있다.
기술은 변화하고,
시스템은 교체되며,
도구는 세대를 거듭한다.
그러나 판단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그 책임을 명확히 가질 수 없다.
본 문서는
이 공백을 기술이 아닌
사고 구조의 언어로 메우기 위한 기록이다.

12.2 이 문서의 위치

본 기록은
기술 문서도, 윤리 선언도, 정책 제안도 아니다.
이는
사고가 어디에서 판단으로 전환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고정한 기준점이다.
이 문서는
이후 등장할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이
어떤 사고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참조 좌표로 기능한다.

12.3 이후 연구·구현과의 관계

본 기록 이후에 이루어질
연구, 기술 구현, 제도 설계는
이 프레임을 **참조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문서는
그 실행이나 결과를 지시하지 않는다.
구현은 다양할 수 있으나,
판단의 기준은 임의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문서는
구현을 제한하지 않되,

판단의 위치가 흐려지는 것을 제한한다.

12.4 “판단의 기준을 남긴다”는 선언

이 기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어디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남긴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판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기록이다.

최종 선언 문장 (고정)

이 문서는
답을 남기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만을 남긴다.

문서 종료 문장

판단이 기준을 잃는 순간,
기술은 방향을 잃는다.